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추진

전북교육청, 내달 17일까지 전수조사... 개인정보 보호 수준·관리 투명성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되며, 각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과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인정보 처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도교육청은 우선 개인정보파일 전수

조사를 실시해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은 신규 등록하고, 변경 사항이 있는 파일은 최신 정보로 현행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하거나 중복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은 통합하거나 삭제해 개인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파일 운영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무용 PC와 각종 저장매체에 보관된 개인정보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저장매체에 보관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고, 보관이 필요한 자료는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종료됐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파기해 장기 보관으로 인한 오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개인정보파일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영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개인정보파일 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정비해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관리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사람 피부 닮은 '스마트 촉각 센서' 구현

전북대 정창규 교수팀, 인체 신경의 이온 신호 전달 원리 모사

전북대학교 정창규 교수(공대 신소재공학부) 연구팀이 인체 신경과 피부의 정보 전달 원리를 모사한 차세대 인공지능(AI) 촉각 센서를 연이어 개발하며 웨어러블 전자기기와 로봇 기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이온(Ion)의 이동을 활용한 자기발전형 센서 기술을 통해 별도의 배터리 없이 압력이나 움직임만으로 전기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전자과부(E-skin) 및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정 교수팀은 최근 관련 연구를 최근 두 편의 국제 학술지 논문을 발표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아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분포된 '구배형(Gradient) 하이브리드'를 개발해 기존 하이브리드 센서의 층간 분리

문제와 낮은 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했다.

이를 통해 넓은 압력 범위에서도 정밀한 감지가 가능해졌으며, 손가락 움직임 호흡 발생 보행 등 다양한 인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AI 기반 학습 기술과 결합해 파일 종류를 거의 100% 정확도로 구별하는 성능을 입증했다.

이어 연구팀은 이온 이동 경로를 정밀 제어하는 '이온 다이오드 기반 센서 플랫폼'을 개발하며 기술을 한 단계 확장했다. 이 센서는 압력뿐 아니라 굽힘 방향과 변형 태까지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AND·OR 논리 연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센서 자체에서 정보 처리가 가능한 지능형 소자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화학공학 및 재료공학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Chemical Engineering Journal'과 'Advanced Science'에 각각 게재되며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창규 교수는 "인체 신경계가 이온 이동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원리에 착안한 연구"라며 "감지와 정보처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차세대 전자과부 기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프랑스와 중국 연구진과의 국제공동연구로 수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알기미스트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리젠다사업, JBNU-KIST 산학연융합플랫폼 교육부 RISE 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추진됐다.

/김재훈기자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22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2026학년도 '하계 있다' 프로젝트 연합 해외봉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인재 양성·학생 역량 강화

국립군산대, 2026학년도 '하계 있다 프로젝트' 발대식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김강주)는 지난 22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2026학년도 '하계 있다' 프로젝트 연합 해외봉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총장을 비롯해 사회공헌센터장 과전 학생 등 대학 관계자와 봉사단원이 참석했으며, 몽골 국립대 한국어학과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있다 프로젝트는 국립군산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대학 국제화를 위해 기존 해외 봉사활동을 대학 간 협력과 학생 교류 중심으로 확대·발전시킨 글로벌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하계 프로젝트는 국립군산대 재학생 28명과 몽골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 6명이 함께 참여해 총 34명의 연합 봉사단으로 운영된다.

양 대학 학생들은 몽골 20번 국립특수학교 114번 국립학교에서 교육봉사 및 노력봉사를 비롯해 SDGs 실천 활동,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 등을 함께 진행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몽골 한울구렁 등 현지 기관과 협력해 나무심기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한 국립군산대 문헌회 학생 대표는 "전공과 재능을 살려 현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다"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몽골국립대 이트구 학생은 "한국 학생들과 함께 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립군산대 김강주 총장은 "있다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전공과 재능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국립군산대학교의 대표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연합 해외 봉사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몽골 국립대 학생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사·김민호 기자

국제교류수업 우수사례 확산

전북교육청, '2026 국제교류수업 웨비나'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제교류수업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교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제교류수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6 국제교류수업 웨비나(Webinar)'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국제교류수업에 관심 있는 도내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초등편은 24일, 중등편은 7월 9일 각각 개최된다.

초등편에서는 국제교류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교사들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전주북일초 최나라 교사는 해외교사 매칭과 온라인 공동수업 사례를 발표하며, 금주초 박준혁 교사는 국제교육기관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 운영 경험을 공유한다.

또 남원원초 김주진 교사는 해외 대면수업과 초청형 수업 운영 방법을, 전주용흥초 서성아 수석교사는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적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중등편에서는 만경고 윤재영 교사가 해외학교 매칭 사례를 발표하며, 정읍 여고 이지혜 교사와 남주중 김성희 교사는 온라인 공동수업 운영 경험을 공유한다.

이어 수송에너지고 류종현 교사, 백산중 정영원 교사, 이리동중 홍세미 교사가 해외 대면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군산제일중 김원과 교사는 초청형 수업 운영 노하우를 전달한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국제교류수업 운영 역량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우수사례를 확산해 학생들이 세계와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진북형 국제교류수업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사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수업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세계시민교육 실천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해외 학교 및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교류수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실제 국제교류 대상 국가는 2023년 하반기 12개국에서 올해 28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참여 학교도 41개교에서 96개교로 증가했다.

/오상근 기자

'질문이 있는 깊이 있는 수업' 공유

전북교육청, 유·초등 수석교사 수업나눔 콘서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실 수업 혁신과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초등 수석교사 수업나눔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유·초등 수석교사 수업나눔 콘서트' 전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운영된 수업나눔 콘서트 주간의 마무리 행사로 마련됐다. 콘서트 기간에는 도내 17명의 유·초등 수석교사가 참여해 각 소속 기관에서 공개수업을 진행했으며, 210여 명의 교원이 참관하며 수업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전체 워크숍은 공개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질이 있는 수업 구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실용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생각을 깨우는 질문의 힘, 질문으로 만드는 깊이 있는 수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도내 유·초등 열린 200여 명이 참석해 특강과 분임 활동에 참여했다.

초등 수석교사들은 학생 중심 수업과 평가를 위한 질문형성 기법, 사고 전략 수업과 평가의 연계 방안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초등 수학 수리력 향상과 영어 파닉스 지도 등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실천



중심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였다.

유치원 수석교사들은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 수업을 주제로 특강과 실습을 진행하며 유아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수업 사례를 공유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수업나눔 콘서트를 통해 교사들이 함께 연구하고 성장하는 협력적 학교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민숙 동신초 수석교사는 "인공지능(AI) 시대일수록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역량은 교사의 체계적인 수업 설계와 실천을 통해 충분히 길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수업 혁신과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와 수업 공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학생 중심의 배움이 실현되는 학교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오상근기자

중학교 교사 IB 교육과정 이해력 향상·진학지도 지원

전북교육청, 2027학년도 IB DP 과정 설명회 개최... 운영 예정 4개 고교 교육과정 소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학지도 지원하기 위해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2일 전주차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도내 중학교 진학 담당교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학년도 IB DP 과정 및 신입학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IB(Diploma Programme)는 고등학교 단계의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으로 6개 교과군과 핵심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탐구력과 사고력, 표현력,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기르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설명회는 2027학년도 입학생을 대상으로 IB DP 과정을 운영할 예정인 도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중학교 현장의 진학지도와 학생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IB DP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와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IB DP 탐구수업 체험 안내, 운영 예정 학교별 교육과정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교사들은 순창고, 지평선고, 전주여고, 전주중앙여고 등 4개 학교의 IB DP 운영 계획과 교육과정 특징, 학교별 운영 방향 등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진로·진학 상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

전북교육청은 IB 교육과정이 학생 중심의 탐구와 토론,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는 만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2일 전주차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도내 중학교 진학 담당교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학년도 IB DP 과정 및 신입학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영 미래교육과장은 "IB DP는 학생들이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며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며 "도내 IB DP 운영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진안교육지원청, 학교자율시간 운영 지원 무진장 공동연수

진안교육지원청이 학교자율시간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무주·진안·장수 지역 교육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진안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진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무주·진안·장수 지역 중학교 교무부장과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학교자율시간 운영 지원을 위한 공동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정책인 학교자율시간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감 승인 신설과목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자율시간은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최근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태환경, 민주시민교육, 디지털 역량 등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교육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연수에서는 봉사중학교 형성은 교사가 강사로 참여해 학교자율시간 운영 사례와 교육감 승인 과목 개발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산업과 공동체를 교육 과정에 반영한 지역 기반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연수는 진안의 교육과정 개발 경험을 무주와 장수 지역에 공유함으로써 지역교육과정 개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학생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이해하며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오상근 기자

완주교육협력지구 중간평가

완주교육지원청은 28일 완주청의예 숲미래공간 '꿈이공'에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완주교육협력지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완주교육협력지구 중간평가를 위한 업무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완주교육협력지구 중간평가는 6월부터 7월까지 단계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지난 18일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단 협의회를 열어 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토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업무담당자 협의회는 2단계 평가 과정으로, 사업 만족도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와 함께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으로 운영됐다.

완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7월 7일에는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단과 교장단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7월 13일부터 24일까지는 중간평가 결과를 종합 분석한다.

/오상근 기자